

# 과학적 객관주의에 대한 철학적 고찰

최영희\*

## Philosophical Study on the Scientific Objectivism

Young - Hee Choi

목 차	
Abstract	
I. 서론	2. 과학적 객관주의 비판
II. 객관주의적 학에 대한 비판	III. 객관주의적 학의 의미지반
1. 형식논리학적 객관주의 비판	IV. 결론
	참고문헌

### Abstract

The scientific achievements since the 'scientific revolution' have formed the philosophical attitude of scientific objectivism. This attitude is apt to lead modern man to have a dangerous belief that science is the prototype of knowledge in general and the scientific method is the exact and the only way to the truth. In this attitude the scientific object is regarded as the real and the world itself.

However, Husserl made an objection to this attitude. He claimed strongly that the real meaning-fundament of the science is the pregiven life-world, and the scientific knowledge is the idealized logical constructs constituted on the life-world.

In this paper I discuss one way to recover the forgotten life-world. The formal logical objectivism is criticised according to the concept of Husserl's self-evidence. The scientific objectivism is criticised by considering the concept of scientific ob-

\* 한국해양대학교 교양과정부 시간강사(철학전공)

jectivism and the historical process of the objectivism. All of these critics contribute in clarifying that the real meaning-fundament of the objective science is the life-world.

## I. 서 론

1500년부터 1700년에 이르는 과학의 성장기에 해당하는 소위 '과학혁명'을 거친 이래, 자연과학은 철학이나 신학 혹은 예술 등과는 달리 꾸준하고 급속하게 발전하여 왔으며, 그의 성취는 인간생활의 여러가지 방면에서 실용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왔다. 실제로 자연과학이 제공하는 유용성을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이용하지 않고 살아가는 현대인은 없을 것이다. 자연과학의 이러한 부정할 수 없는 가시적인 현실적 성과와 업적은 현대인으로 하여금 과학이 마치 지식일반의 원형이며 과학적 방법이 진리에 다다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나아가서 과학적 지식을 실재와 세계자체에 대한 이상적이며 객관적인 지식으로서 간주하게끔 하였다. 과학적인 방법과 과학적 지식에 대한 이러한 견해는 전체로서의 현대 인류의 의식을 깊게 물들이고 있는 하나의 철학적인 태도로까지 형성되어 있는데, 이 철학적인 태도를 후설(Edmund Husserl)은 자연과학적 객관주의라 부른다. 과학적 객관주의가 팽배하고 있는 현대는 과학적 탐구에 직접적으로 종사하는 과학자는 물론이고 이에 종사하지 않는 일반인들 그리고 철학자들 마저도 과학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시대적 상황에 놓여 있다.

객관주의가 우리의 의식을 파고 들어가는 것이 허용되고 있는 이유는 과학적인 문제보다 훨씬 심층적이고 기본적인 철학적 문제가 과학자는 물론이고 우리 모두에 의해서 간과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기본적인 철학적 문제란 과학적 지식의 근거에 관한 것이다. 과학은 과학의 체계 내에서 지니고 있는 자체적 근거보다 더욱 심층적이 것에 그의 근거를 두고 있는 학문이라고 분명히 말한 철학자는 후설이다. 과학이 제공하는 근거는 언제나 어느 이론이 목표로 하고 있는 관점하에서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일정한 관계성 속에서의 근거이며 따라서 상대적인 것이다. 후설이 말하는 근거란 이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절대적이며 궁극적인 것으로서의 근거이다.

여기에서 필자는 후설이 주장하는 학의 근본적이며 궁극적인 근거 내지는 원천을 고찰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소론은 과학의 성취와 업적에 대한 비판이나 분석에 관심을 두지 않고, 다만 과학적 지식의 성립과정에 대한 역사적 반성을 통해서 과학의 의미지반이 무엇인가를 밝힘으로써 지식으로서의 과학적 지식의 본질적인 측면의 일부를 드러내고자 한다. 과학의 학적 본질이 드러내질 때, 현대인의 의식에 깊게 침투되고 있는 객관주의가 극복되고 우리는 과학적 지식에 대한 이성적인 비판적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된다. 과학적 지식의 본질과 그의 한계에 대한 이해는 우리로 하여금 과학을 인류의 차아실현에 정당하게 기여할 수 있게하는

지혜의 길을 제공해 준다.

## II. 객관주의적 학에 대한 비판

인간의 정신적 수행으로서의 학문은 언제나 출발점으로서 직관적인 생활세계를 전제하고 있다. 학문이 제기하고 대답하는 모든 문제들은 언제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계에 토대를 두고 있으며 또한 이 세계에 관한 것들이다. 우리가 이 세계 속에서 구체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前과학적인 지식으로서의 앎은 우리의 실천적인 삶을 가능하게 하는데 지속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다. 객관적 진리를 보편적 지식의 이념으로 삼고 있는 현대의 학문적 문화는 세계 속에서의 우리의 구체적인 삶을 간과해 버리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학의 객관적 타당성과 전반적인 과제를 분명히 해명하고자 한다면 우리 모두에게 공통으로 선소여된 이 세계에 되물어(rückfragen) 보아야 한다는 것이 후설의 신념이다.

후설은 구체적인 주관에 갖는 직접경험의 세계인 생활세계야말로 모든 학을 정초(定礎)하는 의미지반(Sinnesfundament)임을 강조한다. 그의 이러한 주장은 학문 자체의 구조 내에 어떠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든가 혹은 학문의 형식적이며 상징적인 기능을 그만 두어야 한다는 것 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학문에 대한 정당한 철학적 이해를 위해서는 학문과 경험 사이의 밀접하며 분리될 수 없는 연결이 반드시 고려되어야만 한다는 점이다. 그는 자연과학이 자신의 참된 의미지반으로서의 생활세계를 망각하고, 오히려 자신이 구성한 이론적 논리적 구성물으로써 자신의 참된 지반 위에 '이념의 옷'(Ideenkleid)을 입히고, 이 이념의 옷이 입혀진 세계를 이른바 '객관적 세계', '진리의 세계'라고 볼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이 세계로써 생활세계를 해석하려는 '과학적 객관주의적 해석'이 學과 나아가서 인류를 위기로 몰아 넣는다고 보고 있다.

### 1. 형식논리학적 객관주의 비판

후설이 객관주의적 학의 의미지반은 생활세계라 함은 달리 말하면 학의 명증성은 생활세계적 경험에서 구해져야 한다는 말이다. 그의 이러한 사상은 『형식논리학과 선형논리학』에서 모든 명증성은 경험의 근원적인 명증성에 근거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 속에 이미 확고한 신념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후설의 학설에 있어서 아주 독특한 점은 "명증은 논리학이나 심리학의 문제가 아니라 경험의 문제"라는 점이다. 후설에 있어서 원본적인 명증성이란 '구신적(具身的)인 자기 소여성(leibhafte Selbstgegebenheit)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개체와의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만이 현전(顯前, Präsenz) 가능하다. 객관주의적 학에서 진리로서 인정되고

1) Laskey, D., "Transcendental consciousness in Edmund Husserl's phenomenology", *Analecta Husserliana*, 17, 1984, p. 90.

있는 소위 '객관적인 것'은 후설에 의하면 원리적으로 결코 그 자체로서 경험될 수 없는 것이다. 어떠한 판단이든지 그 판단이 명증성을 지니려면 반드시 판단이 되는 대상의 원본적인 명증성과 소원(溯源, zurückgehen)적인 관계를 맺어야만 한다. 이러한 점에서 모든 논리적이며 술어적인 명증은 생활세계가 부여하는 先논리적이며 先술어적인 명증 위에 기초하고 있다. 생활세계가 모든 인간적 실천의 기반이라는 명제적인 주장은 좀 공허한 것처럼 들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가 『위기』 이전에 출간한 그의 저서들 속에 나오는 경험과 명증성에 대한 현상학적 기술들은 그의 주장을 인식론적으로 뒷받침해 주고 있다.<sup>2)</sup>

후설은 『위기』에서 뿐만 아니라 『경험과 판단』에서 이미 술어적 명증(prädikative Evidenz)의 근원이 先술어적 명증(vorprädikative Evidenz)에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sup>3)</sup> 후설이 이 先술어적 명증의 세계에로의 귀환을 주장하는 것은 철학을 절대적인 확실성 위에 선 학문으로 개조하려는 그의 일관된 철학적 신념에서이다. 이러한 철학적 신념 내지 철학적 요구는 이미 데카르트의 방법적 회의에 의해서 시도되었으며 그에 의해서 철학의 확실한 기초로서 순수사유의 자아를 획득하였던 것은 널리 인정되고 있는 바이다. 그러나 어떠한 전통이나 이론을 전제하지 말고 그 자체 확실한 것을 외쳤던 데카르트는 그 자신 스스로 커다란 전제 밑에서 철학적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으니 그 전제란 다름아닌 수학적, 기하학적 자연과학의 이념이었다. 그래서 그는 절대적인 확실성을 지닌 학문은 연역적 체계를 지닌 학문이어야 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보편학으로서의 철학도 역시 수학과 기하학적 체계를 따라야 한다고 믿었다. 이러한 점은 칸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칸트에 있어서 학문의 이상적인 방법은 기하학과 자연과학이었다.

이들 철학자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모든 철학자들과는 달리 후설은 스스로 철학하고자 하는 자는 어떠한 전제에 의해서도 인도되어서는 안되며, 대상이 우리의 의식에 주어진 그 자체에서 시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전통적인 형식논리학은 '대상의 주어짐'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채로 오로지 사유 내용으로서의 판단의 형성 법칙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 후설은 이러한 전통적인 논리학의 기초를 반성적으로 분석하고 비판함으로써 술어판단에서 출발하는 논리학의 원천은 술어판단 이전의 세계 즉 先술어적 경험에 있음을 강조한다. 즉 하나의 판단이 참된 판단이 되기 위해서 그 판단이 지녀야만 하는 술어적 명증은 先술어적 명증에 그 근원이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비로소 지금까지는 관심 밖에 있었던 대상적 명증성을 다루는 先술어적 명증을

2) 명증성에 대한 현상학적 해명을 수행한 『논리연구 II』, 모든 논리적이며 서술적인 영역이 가능하기 위한 先술어적 수동적 종합의 과정을 분석한 『수동적 종합의 분석』, 모든 명증성은 경험의 근원적인 명증성에 근거해야 한다고 주장한 『형식논리학과 실험논리학』, 그리고 先술어적 경험을 다룬 『경험과 판단』 등에는 생활세계적 경험이 지니는 명증성에 관한 후설의 사상이 담겨 있다.

3) 후설은 『경험과 판단』에서 발생적 관점에서 논리적 명증성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취급하는 '현상학적 판단론'(die phänomenologische Urteilstheorie)<sup>4),5)</sup> 혹은 '선형적 판단론'(die transzendente Urteils-theorie)<sup>6),7)</sup>이 성립하게 된다. 일상적인 직접경험의 세계는 모든 논리적 작용에 앞서서 직접 우리 눈 앞에 주어지고 있는 세계로서, 모든 인식 활동이나 일상적 실천의 기반이다. 『경험과 판단』에서 이 근원적인 경험이 선술어적 경험으로, 그리고 이 경험계가 생활세계로 불리워지고 있다.<sup>8)</sup> 그리하여 술어적 명증의 선술어적 명증에로의 되돌아감(Rückgang)은 곧 생활세계적 명증에로의 소원(溯源)을 의미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판단의 명증성에 관심을 두고 있는 논리학은 선술어적 경험이 제공하는 논리적 구조까지 탐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경험의 가장 낮은 기저(基底)층까지 탐구 대상으로 삼는 현상학적 논리학의 영역은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형식논리학이 자신의 영역으로 삼아왔던 것보다 더욱 넓고 깊다.

판단은 '존재자'에 대한 지식을 추구하는 활동이므로, 판단은 '그것에 대해서' 판단되는 대상으로서의 기체(基體, Substrat)<sup>9)</sup>가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어떠한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에는 그 판단의 대상이 되는 존재는 당연히 이미 주어지고 있다고 전제하며, 따라서 판단은 논리학에서 규정된 형식에 관한 원리와 규칙만을 만족시키기만 하면 그것으로서 충분한 명증성을 지닌다고 여기게 된다. 그러나 후설의 견해는 이와는 다르다. 그에 의하면 명증적인 술어적 판단은 오직 대상의 소여성을 토대로 해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대상 자체가 명증적으로 주어지지 않고서는 대상에 관한 명증적인 술어적 판단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판단이 명증적이기 위해서는 논리학의 형식적인 원리와 규칙을 만족시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고 우선 먼저 내용적인 관계에서 대상 자체가 어떻게 주어지고 있는지를 문제 삼아야 한다. 명증적인 판단이 되기 위해서는 형식논리적인 법칙과 원리를 갖추기 이전에 먼저 판단되는 대상이 명증적으로 소여(所與)되어야만 한다. 형식논리학이 명증의 논리로서 충분하지 못한 점은 바로 이 대상의 존재를 전제함으로써 대상의 소여성이 지니는 명증성을 간과해 버리는 데에 있다.

그런데 모든 판단은 그것이 아무리 다양한 방식으로 매개되었을지라도 궁극적으로는 개별자와 관계하므로 판단의 최후의 궁극적 기체는 개별자이다.<sup>10)</sup> 이 개별적인 기체와의 직접적인 관계로 이루어지는 경험을 후설은 선술어적 경험이라 하였고, 이 선술어적 경험이야말로

4) EU, S. 21.

5) 이 현상학적 판단론에서는 선술어적 경험의식에서부터 시작하여 점차 더 높은 단계의 명증성의 출현을 추적해 나간다.

6) FTL, S. 216.

7) 선형적 판단론에 있어서 그 자체 최초가 되는 주제는 선술어적 경험이 지니는 명증이다.

8) EU, S. 21, S. 38.

9) 판단의 행위는 대상으로서의 기체에 '대한' 판단이므로, 후설은 이 기체를 단순히 Gegenstand라 하지 않고 Gegenstand-wörter라 한다.

10) Vgl. EU, S. 21.

술어적 판단의 기원으로서 궁극적인 대상적 명증을 지닌 자기 소여성을 부여한다고 보았다. 여기에서 대상적 명증이란 직접적인 경험에서 획득되는 명증으로서 대상이 의식에 '그 자신 현존'(selbst da), '구신적으로 현존'(leibhaft da)한다고 말할 수 있는 '자기 소여성'을 말한다.<sup>11)</sup> 경험에서 그 경험과 관련된 사물이나 사태가 그것 자체로서 생생하게 나타나는 것과 같은 자기현전적(selbst-gegenwärtig)인 모든 지각은 명증적이다.<sup>12)</sup>

이러한 대상의 명증적인 소여는 형식적인 명증성보다 더 기본적인이다.<sup>13)</sup> 왜냐하면 대상의 명증적인 소여는 술어적인 형식에 구속되지 않는 것으로서, 판단의 기체는 술어적인 판단으로서 판단되지 않고도 얼마든지 명증적으로 소여될 수 있는 반면, 명증적인 술어적 판단은 형식논리적 법칙과 원리를 지킴으로써 가지게 되는 형식적 명증 외에 판단되는 대상이 미리 주어지는 방식이 가지는 대상적 명증(gegenständliche Evidenz)이 갖추어졌을 때 비로소 판단은 대상적 판단으로서 명증성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대상에 대한 판단이 온전히 명증적이기 위해서는 우선 대상적 명증성이 갖추어져야 한다. 그런데 형식논리학은 대상의 존재를 전제 내지는 간과해 버림으로써 판단되는 대상의 명증적인 소여성의 조건에 대해서는 탐구하지 않는다. 바로 여기에 형식논리학의 한계가 있다. 후설은 이러한 대상적 명증이 판단적 명증을 최초로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대상적 명증을 형식적 명증보다 더욱 근원적인 것으로 보았다. 즉 그 자체로서 명증적으로 주어지는 대상은 판단이 가능하기 위한 전제이어서, 대상에 관한 술어판단이 명증적이기 위해서는 그 대상 자체가 명증적으로 주어지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선술어적 경험이 형식논리학의 토대를 제공한다는 의미는 하나의 순수논리적인 신택스(syntax)가 형식논리학의 기본층을 구성한다는 의미와는 전적으로 다르다. 신택스는 형식논리학 내에서는 가장 낮은 층을 구성하지만, 이것 역시 언제나 선논리적인 것을 소급 지시한다.<sup>14)</sup>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논리적인 것을 보다 더 기본적인 것으로 아무리 분석하여 내려간다 하여도 그 분석이 형식논리학 내에서 이루어지는 한 그 '근원'의 주장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후설은 생활세계와 객관주의에서 말하는 소위 '객관적으로 참'인 세계를 원리적으로 구별한다.<sup>15)</sup> 통상 생활세계는 주관적이며 학적인 세계는 객관적이며 참인 것으로서 이해되고 있는데, 이는 후설에 의하면 오히려 다음과 같은 사실을 말할 뿐이다. 즉 객관적인 세계는 이론적 및 논리적인 기초구성물(Substruktion)로서 원리적으로 직관될 수 없고, 따라서

11) EU, S. 11f.

12) Vgl. *Krisis*, S. 107.

13) Vgl. EU, S. 12-14.

14) Mohanty, J.N., *Edmund Husserl's Theory of Meaning*, 1969, p. 134 참조.

15) Vgl. *Krisis*, S. 130-134.

고유한 자기 자신의 존재(Selbstsein)에 있어서 경험 불가능하다.<sup>16)</sup> 반면, 개체와의 직접경험으로 이루어지는 생활세계는 모든 면에서 현실적으로 직관 가능하다. 이렇게 직관되는 생활세계야말로 원본적인 명증의 영역이다. 왜냐하면 지각에서 명증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그 자체'(es selbst)로서 직접적인 현전(現前, Gegenwart) 속에서 경험되기 때문이다. 모든 가능한 확인(Bewährung)은 이러한 명증에로 되돌아가야 한다. 사유의 구성물은 생활세계 속에서 직접 경험되는 직관적인 명증성에 되돌아 관계됨으로써만이 실제적인 진리(wirkliche Wahrheit)를 지닐 수 있는 것이다. 생활세계는 이러한 명증에 있어서 원권리(Urrecht)를 지니고 있으며, 지식을 근거지우는 점에서는 객관적이며 논리적인 명증에 비하여 훨씬 높은 권위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후설은 학적 대상의 매개적인 성격과 대조되는 생활세계의 직접성을 강조한다.

현대의 수학적 논리학자들은 모든 객관적 학문을 위한 보편적이며 *a priori*한 기초학문으로서 완전히 독립적인 논리학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후설이 보기에 이 완전하다는 독립성이란 그들이 그러리라고 단순히 상정하는 것 뿐으로서, 이 논리학은 다른 학문과 마찬가지로 소박성(Naivität)을 면치 못하고 있다. 보편적인 생활세계의 *Apriori*<sup>17)</sup>에로의 학적인 근거지움이 결여되어 있는 모든 객관적인 학은 자신이 어디에 근거지워지고 있는가에 관해서 알지 못하는, 말하자면 주춧돌이 없는 공중누각과 같은 학이 되고 만다. 모든 객관적인 논리학과 *a priori*한 학문의 근거는 선논리적인 것으로서, 이를 통해서 논리학 자체가 규범화될 수 있으며, 또한 모든 논리적인 것과 객관적 이론들의 총구성(Gesamtbau)이 자신들의 방법적 형식에 의하여 합법적인 의미를 명시하게 된다.<sup>18)</sup>

## 2. 과학적 객관주의 비판

선논리적인 생활세계가 학적인 근거가 됨을 알고 이 생활세계를 탐구하고자 하여도 현대에 사는 우리는 생활세계 그 자체를 정당하게 탐구하기가 어렵다. 이는 후설에 의하면, 생활세계나 그 속에서 기능하고 있는 선형적 주관에의 접근 자체가 어려워져라기 보다는 우리의 의식이 피상적인 객관주의적 사고 방식에 젖어 있기 때문이다. 생활세계에 합당한 방식에 의해서 생활세계에 대한 탐구가 수행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는 이 객관주의적 사고 방식으로부터 벗어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근대의 실증과학으로부터 지속되어 오는 역사적인 편견은 어린이의 영혼에까지도 파고 들어서 그 편견이 미치는 영향 속에 편견 자체가 숨겨져 버릴 정도로 강하다.<sup>19)</sup> 그리하여 단지 편견을 없애야겠다는 막연한 추상적인 의지는 결코 우

16) 객관적인 것의 경험 가능성은 기하학적 이념의 경험 가능성과 다르지 않다. [Vgl. *Krisis*, S. 133].

17) 명사적으로 사용되는 'Apriori'는 원리에 대한 인식이든 본질에 대한 인식이든 경험과는 독립된 인식을 총칭하는 명칭이다. 이 길우, "구성 이론과 존재론, 『후설과 현대 철학』, 1990, p. 152.

18) Vgl. *Krisis*, S. 144.

19) Vgl. *Krisis*, S. 122.

리의 태도에 아무런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고 후설은 말한다. 이렇게 우리 의식을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는 객관주의에서 벗어나는 하나의 길은 객관주의의 참 모습을 들여다 보는 것이다. 후설이 『위기』에서 생활세계를 곧 바로 논하는 대신 그 책의 1부에서 우선 객관주의적 학을 논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후설은 『위기』에서 의미와 학의 발전을 역사적으로 반성함으로써, 근대과학의 눈부신 성과 이래로 위세를 떨치게 된 자연과학적 객관주의는 필연적인 절대 불가결한 사태 발전도 아니고, 또한 변경할 수 없는, 말하자면, 그 자체로서의 진리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즉, 이 객관주의는 인간 의식이 이룩해 온 이론적 실천의 성과를 통해서 획득된 의미의 변천 과정을 거치면서 역사적으로 침전되면서 형성된 하나의 해석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해석에 불과한 것임이 드러난 이상 우리는 이 객관주의적 태도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또한 이 태도에서 벗어나 학의 참된 의미기반으로 귀환함이 우리가 학의 참된 의미를 획득할 수 있기 위해서 취해야 할 태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객관주의적 학에 대한 역사적 반성의 목적이다.

#### 1) 과학적 객관주의

철학을 포함하여 20세기의 서구 문화는 점점 더 정확한 것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 정확한 것을 획득하는 방법으로는 '과학성'을 내세워 분석적이며 기술적인 방법을 채택하여 가고 있다. 이와 같은 경향성은 수학과 물리학이 거둔 성공이 學일반에 끼친 눈에 띄는 영향이다. 이러한 영향은 객관주의라는 형태를 띠고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성에도 작용하고 있다.

이 객관주의는 자연주의적 태도의 특징을 이룬다. 우리는 비록 개인적으로는 자연과학에 흥미를 가지지 않고 자연과학의 결과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르고 있다고 하더라도, 존재하는 것은 모두 원리적으로는 과학적으로 규정 가능한 것으로 믿고 있다. 이러한 믿음은 근세에 이르러 비로소 확립된 다음과 같은 객관주의의 이념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의미한다.<sup>20)</sup> 즉, 존재자의 무한한 전체성은 그 자신 합리적인 전체적 통일체이며, 따라서 이것은 이와 상관되어 있는 보편적 학문에 의해서 남김 없이 지배될 수 있다는 이념이다. 물리적 및 수학적 과학의 정밀한 방법에 의해서 지배 가능하며, 그 자체로서 규정되는 세계(an sich bestimmtes Universum)라는 이 이념이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어서, 우리는 경험의 개별적인 소여도 이 이념에 따라서 이해하게 된다. 즉, 객관적 자체적 존재로서의 우주 전체와 마찬가지로 개별적인 경험 대상도 자체적으로 규정되며, 인식 활동이란 이러한 규정성을 그들이 존재하는 대로 객관적으로 확립하는 것이라고 여긴다. 이 자체적 존재라는 의식은 자연과 인간을 갈라 놓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자연세계에서 인간을 분리해 내고 자연을

20) Vgl. EU, S. 40.



비인간적이며 수학적인 용어로 기술하게 되었다.<sup>21)</sup> 존재자의 자체적 규정성이라는 이념과, 따라서 경험세계란 자체적 규정성을 지닌 자체적 존재자들의 우주라는 이념은 너무도 당연해서, 이 '객관성'이라는 것이 아예 처음부터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리하여, 그 속에서 우리의 경험이 일어나는 시공간도 자연과학적인 정확한 시공간으로 상정되고 있으며, 경험되는 존재자들 간의 인과적 연관도 객관적 과학에서 규정되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인과율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자연과학적 객관주의가 보편화될 때 모든 존재는 자연화되고 만다. 그리하여 인간 자체도 자연의 인과법칙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는 자연의 일부인 사물적인 존재로 간주된다.

후설은 이와 같은 객관주의의 보편화가 현대의 우리 인간의식을 지배하고 삶의 태도를 결정하는 상황을 '위기'(危機)로 진단 하였다. 위기란 반드시 극복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 위기의 극복은 철저한 자기이해를 요구한다. 수학과 수학적 자연과학이 자연과 세계에 대해서 지니게 된 이념으로 이끈 원래의 동기와 사유의 움직임 등에 대해서 명확히 한다는 것은 현재의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에 도달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고 후설은 확신하였다. 그는 특히 자연에 대한 정확한 학문의 '원천적 의미'(Ursprungssinn)에 대한 반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고 보았는데, 이는 자연에 대한 정확한 학문이 과거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여전히 "의미의 변천과 왜곡된 자기해석을 통해서 현대의 실증과학과 현대의 철학 그리고 나아가서 일반적으로 현대 유럽 인간성의 형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sup>22),23)</sup>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후설이 『위기』에서 수행한 객관주의에 대한 역사적 반성은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철학적으로 위기적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자기이해에 도달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도 하겠다. 여기에서 역사적 반성이란 지나가 버린 시간적으로 최초의 것을 찾아내는 데에 목적이 있지 않고 어디까지나 현재 망각되어 버린 근원적인 것에 로 되돌아 감에 목적이 있다.

## 2) 과학적 객관주의의 성립과정

우리가 현실적으로 경험하면서 직관하는 세계에는 모든 물체적 형태들과 함께 시공간의 형식이 속한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어떠한 기하학적인 관념이나 기하학적 공간 또는 수학적 시간도 발견하지 못한다. 이것은 매우 사소한 일 같아 보이지만, 이것을 언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후설은 지적하고 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주어진 것으로서 모든 이념화

21) Laskey, D., "Embodied consciousness and the human spirit", *Analecta Husserliana*, 1, 1970, p. 199 참조.

22) *Krisis*, S. 59.

23) 후설이 『위기』에서 학의 위기를 유럽 인간성을 지칭하면서 말하고 있지만, 학의 위기는 유럽 인간성에만 국한되지 않고 곧 인간성 자체의 위기이다. Eley, L., *Die Krisis des Apriori in der transzendentalen Phänomenologie Edmund Husserls*, 1962, 참조.

(Ideali-sierung)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전제되고 있는 참 실재적인 것이 방법적으로 수행된 이념화된 것으로 대치되면서 '정확한 과학'에 의해서 파묻혀져 있기 때문이다.<sup>24)</sup> 이렇게 파묻혀 있는 세계가 학의 근원적 기반임을 드러내는 것이 과학 성립의 과정을 반성하는 목적이다.

후설은 학문적인 작업은 어느 한 시대나 어느 특정한 학자에서 끝나거나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형성의 지속적인 과정 속에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현대 학문은 과거의 이론적이며 실천적인 모든 이념들을 내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말하자면, 어느 시대의 학에는 그 앞선 시대로부터 내려온 성과들이 역사적으로 침전되어 있다. 현대의 인간성을 지배하고 있는 객관주의는 갈릴레이(Galileo Galilei)로부터 시작된 수학적 물리학이 그 나름대로의 발전 과정 속에서 역사적으로 침전되면서 형성된 것이라고 후설은 보고 있다.<sup>25)</sup> 그리하여 그는 이 객관주의 형성의 역사적 기원을 갈릴레이에 두고서 이의 형성 과정을 반성하고 있다.

후설은 갈릴레이의 과학은 자연의 수학화라고 규정하고 있다.<sup>26)</sup> 그러나 이념화로서의 수학화는 갈릴레이로부터 비로소 시작된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한 토대는 이미 고대의 기하학과 측량술에서 찾아진다. 갈릴레이 자신이 전수해 받은 순수기하학은 이미 근원적인 기하학적 의미를 상실해 버린 그러한 순수기하학이었다.<sup>27)</sup> 후설에 의하면, 관념적인 기하학은 관념적인 것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몰랐던 실천적인 측량술로부터 발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前기하학적 수행이야말로 기하학의 의미지반이며, 이념화라는 위대한 발견의 지반이다."<sup>28)</sup> 갈릴레이가, 물론 갈릴레이 이후의 모든 과학자를 포함하여, 이 근원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성취에 대해서 되묻지 않고서 순수기하학을 그냥 받아들인 점이 갈릴레이의 운명적인 실수였다고 후설은 지적하고 있다. 이 세계에서 직접 지각되는 형태를 아무리 자유로이 변경시키고 다듬어도 우리는 경험적으로 가능한 직관적 도형에 도달할 뿐이지 결코 '정확한' 도형에는 도달하지 못한다. 그런데도 '어떻게 기하학의 관념적인 대상이 구성될 수 있는가'라는 점에 대해서 갈릴레이 자신은 반성해 보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관념적 대상의 구성 과정을 후설은 이념화 과정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런데 후설에 의하면 이러한 이념화는 생활세계적인 前과학적(vorwissen-schaftlich)인 실천으로부터 유래한다. 예를 들면, 관개를 위하여 땅을 정확히 분배하거나 건물을 세울 때 좀더 정확한 측정을

24) Vgl. *EU*, 10 ; *Krisis*, 9.

25) 『위기』에서 갈릴레이라는 이름은 역사적인 한 인물을 가르키는 용어라기 보다는 오히려 광범위하고 복잡한 역사적 상황을 포괄하는 집단적인 용어로서 쓰이고 있다.

26) Vgl. *Krisis*, S. 20ff.

27) 기하학이 형식적이고 보편적인 이론으로 체계화되어 가는 학적 발전은 신 귀현, "과학의 객관주의와 주체성 상실의 위기에 관한 현상학적 분석", 『효정 채수한 화갑기념논문집』, 1984, pp. 424f에 요약되어 있다.

28) *Krisis*, S. 49.

하고자 하는 실천적 요구에서 정확한 도형이라는 생각에 미치게 되었다는 것이다.<sup>29)</sup> 생활세계에서는 막대를 아무리 반복하여 다듬어도 결코 완전한 직선에 도달할 수는 없다.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의식에 있어서의 획기적인 단계는 실천적으로는 유한할 수 밖에 없는 반복을 사유적으로는 무한의 반복으로 자유로이 변형시켜서 무한의 반복 끝에 도달되는 궁극적인 직선을 상징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의식에서 도달되는 궁극적인 직선은 생활세계 속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극한형태(Limesgestalten)로서, 이는 순수 기하학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이념적인 대상이다. 유한의 반복을 무한의 반복으로 변경시킨 이 발견이 바로 이념화 작용 자체이다. 이것은 생활세계 내에서의 사건으로서 생활세계 내에서 동기(動機)화 되었으나 동시에 생활세계를 뛰어 넘어서 순수 관념적인 대상을 산출해 내는 작용이다. 이렇게 산출된 관념적 대상들 간에는 생활세계 속에서 보는 유형적이고 막연하며 부정확한 관계 대신에 정확하며 불변적인 관계가 성립한다. 후설의 논의의 흐름을 따르면, 우리가 정확한 기하학적 도형을 구성하는 이념화의 과정이란 생활세계의 경험적인 유형성을 본질로 변형시키는 작용이다. 그러므로 기하학적 구성물의 의미지반은 직접 경험되는 생활세계이다. 여기서 지적해 들 것은 이념화에 의해서 구성되는 본질이 경험적 대상의 가능 조건은 아니라는 점이다.<sup>30)</sup>

수학의 의미 상실은 이념화에 의해서 획득된 순수한 기하학적 형태들의 전영역에 걸친 기하학의 산술화(Arithmetisierung)에 의해서 더욱 심화 되었다.<sup>31)</sup> 이는 측정의 결과가 일반적인 숫자와 일반적인 명제 등의 산술적인 용어로서 표현될 때, 순수한 직관에서 주어지는 형태들을 직접 다루는 대신에 이것들을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단순한 수(數) 형태들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즉, 기하학이 산술화될 때 시공간적인 것과 관념적인 것들이 순수한 숫자적인 배열과 산술적인 구조로 변형되면서 기하학적 의미는 상실되고 만다. 이 기하학의 산술화는 갈릴레이 시대에 들어와서 완전히 보편적인 형식화에 이르게 되었으며, 따라서 기하학은 자신의 근원적인 의미를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 왜냐하면 산술화에 의해 형식화된 해석(解析)기하학에서는 기하학이 기술적이며 산술적인 규칙에 의해서 수치적 결과만을 얻어내는 단순한 기술화(Technisierung) 되고 말기 때문이다. 이 단계에서는 도형이라는 개념마저 뒷전으로 밀리고 수식에 의한 산술적 계산만이 '기계적'으로 취급되게 된다.

갈릴레이가 받아들인 기하학은 이와 같이 이미 근원적인 기하학적 의미가 상실된 것이었고, 이 상실된 의미는 갈릴레이에게는 숨겨진 채로 이미 전제된 것이었다.<sup>32)</sup> 후설에 따르면, 갈릴레이의 업적임과 동시에 큰 실수는 기하학의 형성 과정 중에서 상실하게 된 의미지반에 대한 반성이 없이, 시공간적 형태에 대한 순수학문인 순수기하학을 그대로 받아들여 자연을

29) Vgl. *Krisis*, S. 25.

30) Mohanty, J.N., "Life-world and a priori in Husserl's later thought" *Analecta Husserliana*, 3, 1974, p. 62 참조.

31) Vgl. *Krisis*, S. 44.

32) Vgl. *Krisis*, S. 50.

수학화하였다는 점이다. 자연의 수학화란 자연 자체가 수학의 지도하에 관념화되고 대상화됨을 말한다.

갈릴레이는 어떻게 자연을 수학화 하였는가? 유클리드(Euclid) 기하학의 성취와 더불어 일상생활 속에서 생활세계가 보여주는 유형적인 인과적 규칙성은 갈릴레이로 하여금 지각세계의 가시적인 규칙성은 수학적으로 표현되는 정확한 규칙성이 현실적으로 나타난 것이라는 가정을 하게끔 하였다. 갈릴레이는 수학이 지각적 세계의 유형적인 인과적 규칙성의 정확한 구조를 확립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보았다. 갈릴레이 시대에는 유클리드 기하학이라는 형태로 수학은 이미 연장(延長)적인 면에서 물체를 이념화하는 데에 성공해 있었으며, 유클리드 기하학이 실제적으로 이용되면서 지각세계는 순수 기하학적 도형과의 관계를 포함하고 있다는 생각이 퍼져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갈릴레이는 지각세계의 연장적인 면 뿐만 아니라 지각세계 자체를 수학적으로 다루고자 하였다.

갈릴레이가 자연을 수학화하려고 했을 때 전통적으로 전승되어 있던 수학은 지각세계의 도형적인 면에 대한 직접적인 수학화에 성공한 순수 기하학이었다. 그런데 생활세계에서 경험되는 물체는 형태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형태를 채우고 있는 감각적인 충만성(Fülle, plena)도 함께 가지고 있으며, 우리에게는 이 형태와 충만성이 전체적으로 주어진다. 자연 자체를 수학화하려 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충만성이다. 형태의 경우에는 그 형태의 정도가 극한치에 달하는 궁극적인 극한형태가 있어서 이것을 이념화할 수 있지만, 충만성의 경우에는 추상적으로 분리해서 이념적 내용물로서 주제화할 수 있는 '극한 정도'가 없다. 예를 들어, 우리는 막대를 보면서 그 모양의 극한형태로서 직선을 상정할 수 있으나, '뜨거움'이라는 충만성의 정도를 아무리 높인다 해도 이념적인 극한의 상태를 상정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릴레이는 이러한 충만성까지도 포함한 쏠자연을 수학화하고자 하였다. 이 때에 갈릴레이가 사용한 방법이 바로 자연의 간접적인 수학화였다. 그런데 자연의 충만성의 간접적 수학화는 이것들이 직접적으로 수학화될 수 있는 형태 양상으로서 재표현될 때에만 가능하다. 예를 들면, 소리의 높낮이를 진동수로, 그리고 색깔을 파장으로 재표현시키고, 이 재표현된 것을 수학적 관계식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여기서 갈릴레이는 지각세계의 양적인 면이 질적인 면에 필수적으로 의존되어 있다는 일반 가정을 내세웠다. 여기에서 갈릴레이는 더 나아가 속도와 가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발견하여 물체의 운동현상까지도 수학화하여, 자연 전체를 수학화하기에 이르렀다.<sup>33)</sup> 자연의 이와 같은 간접적인 수학화는 직관적으로 주어진 세계를 객관화시키고자 하는 방법이다.

지금까지의 역사적 반성에 의하면, 숫자로 표현된 자연에 대한 함수식(函數式)의 참된 의미는 순수한 산술에서처럼 숫자 간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갈릴레이가 보편과학화 하고

33) 신 귀현, 앞의 논문, 1984, p. 426 참조.

자 하였던 직관적으로 본래 주어진 세계, 즉 생활세계 속에 있다. 과학이 이 생활세계로부터 떨어져 갈수록 과학은 자신도 모르게 점점 더 기술적인 차원으로 바뀌어 가면서 추상적인 방법을 절대화하고 보편화해 간다. 그리고 자연에 대해서 숫자로 표시된 함수식이, 이 함수식이 표현하고자 하는 실제 대상은 염두에 두지 않고서, 오직 기계적으로만 계산될 때에 이 함수식이 담고 있는 의미의 상실은 절정에 다다르게 된다. 함수식으로 표현된 자연은 어디까지나 그 식의 관점에서만 해석될 수 있는 자연이지 다양성을 안고 있는 구체적인 생활세계는 아니다. 자연의 수학화는 다양성을 지니고 주어지는 존재를 수학적으로 계산하고 또한 수학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관념적 대상으로 파악하는 존재에 대한 근대 객관주의를 낳게 하였으며, 이 객관주의는 경험세계의 감각 성질을 수량화 함으로써 현실 세계의 다원성을 부정하고, 따라서 세계 인식의 다원적 통로를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수학적으로 구성된 관념체를 생활세계에 강요함으로써 근대적 객관주의는 결국 존재의 의미를 소외시키고 있다.”<sup>34)</sup>

### Ⅲ. 객관주의적 학의 의미지반

앞에서 간략하게 살펴본 바와 같이, 수학적으로 표현된 자연이란 직접 경험된 세계가 직접 간접으로 수학화될 때마다 이념의 옷이 한 벌씩 걸쳐진 가려진 세계이다. 기하학적, 자연과학적 수학화에서는 우리의 구체적인 경험 속에서 현실적으로 주어진 세계인 생활세계를 ‘잘 맞는 이념의 옷’, 즉 소위 객관적 과학적 진리의 옷으로 잰다. 우리는 이 이념의 옷을 통해서 원래의 생활세계 내에서 경험되는 막연한 예견(豫見)을 좀 더 정확하게 하려는 목적을 위해서 고안된 하나의 방법을 참된 존재로서 받아들이게 되었다.<sup>35)</sup>

후설이 말했듯이, 모든 가설과 마찬가지로 자연의 수학화라는 갈릴레이 과학의 근본 입장도 끝없이 언제라도 검증 받아야 될 하나의 가설이다.<sup>36)</sup> 그런데도 이 가설에 의해서 수학화된 자연을 참된 세계라고 믿는 객관주의에서는 이념의 옷으로 위장된 자연과학적 세계가 그 자체로서 독립된 세계이며 동시에 객관적인 眞의 세계로 되고, 이념의 옷 속에 감추어진 현실적인 실제 세계는 비객관적인 그리하여 비진리의 세계로 되어 버렸다. 이것은 원래의 사태가 뒤바뀐 것으로서, 과학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세계는 어디까지나 직접 경험의 세계를 지반으로 해서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재구성된 것이다. ‘발견의 천재’인 갈릴레이는 동시에 ‘은폐의 천재’<sup>37)</sup> 라고 한 후설의 지적은 갈릴레이가 바로 이러한 참된 의미를 역전시킨 최초의

34) 이진우, “후설 현상학과 탈현대”, 『후설과 현대사상』, 1990, p. 273.

35) Vgl. *Krisis*, S. 52.

36) Vgl. *Krisis*, S. 41.

37) *Krisis*, S. 53.

인물임을 가리키는 것이다. 갈릴레이는 서구 학문에 있어서 지적인 발달을 가져 왔지만, 동시에 학의 이론적인 빈곤의 가능성을 초래한, 말하자면 “서구철학과 과학적 사유의 역사에서 상반된 성격을 띤 인물이다.”<sup>38)</sup>

학문은 이념화라는 특수한 정신적 작용을 거쳐 형성되는 이론적이며 논리적인 상부 구조이다. 상부 구조는 본질적으로 자신이 그 위에 설 수 있는 하부 구조를 필요로 한다. 생활세계는 학의 세계를 받치고 있는 하부 구조이며, 동시에 이념화가 전제로 하고 있는 이념화될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 학적인 세계가 생활세계의 기반이 아니라, 생활세계야말로 모든 이념화된 학의 의미지반이다. 학의 세계는 추상적인 것으로서 생활세계에 의존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생활세계는 학의 세계에 대해서 독립적이다.<sup>39)</sup> 과학적 개념은 생활세계의 개념으로부터 발전해 왔으며 또 이들을 전제로 하고 있다. 후설이 생활세계가 학의 의미지반이라 할 때의 이 지반은 마치 학문에서 어느 개념이 다른 개념의 기초가 된다는 식의 상대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실제로 직접적 직관의 원천(Urquelle)이며 또한 근원적으로 직관적인 사유의 원천으로서 이념적 학문이 최초로 그의 의미를 길어낸 원천이다. 이 원천으로부터 떨어져 버린 모든 학은 ‘의미가 비어져 버린’(sinnentleert) 학이다. 이 점에서 볼 때 고대의 기하학도 예외는 아니라고 후설은 보고 있다.<sup>40)</sup>

학문이 이 원천으로서의 생활세계와의 관계를 망각하고 나아가서 학문과 삶 자체가 분리되어 있는 상황이 곧 학의 위기이다. 생활세계를 전제로 하지 않거나 생활세계와 관계가 없는 학문은 없다. “자연과학자를 포함하여 이 세계에서 살아가는 인간은 모든 그의 실천적이며 이론적인 질문을 오직 이 세계에 대해서만 제기할 수 있었으며, 개방된 무한한 미지성의 지평을 지닌 세계에만 이론적으로 관계할 수 있었다.”<sup>41)</sup> 우리의 전 삶이 일어나는 곳으로 직관되고 경험되며 경험 가능한 이 세계이다. 학문이 객관주의적으로 되어 가면서 학문은 원천으로서의 생활세계를 망각해 가고, 학문과 삶 자체는 상호분리의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객관적 학문은 생활세계적인 직관으로부터 이념이 형성된다는 점을 망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애초부터 봉사하기로 되어 있던 궁극적 목적도 망각하고 있다고 후설은 지적한다.<sup>42)</sup> 그는 이 궁극적 목적은 생활세계 속에 있으며 생활세계와 관계가 있다고 본다. 생활세계적 경험을 통하여 직관된 주관적이며 상대적인 것 대신에 학문의 이념화 과정으로 인하여 비직관적인 구성물과 물리학적 실재들이 오히려 참된 존재로서 대치되고, 따라서 직관적인 생활세계의 자리에 원칙적으로 직관될 수 없는 학문의 세계가 들어서게 되었다.

38) Rizzacassa, “The epistemology of the science of nature in relation to the teleology of research in the thought of the later Husserl”, *Analecta Husserliana*, 9, 1979, p. 78.

39) 후설에 의하면, 의존과 독립의 관계에 있는 것들에서 의존적인 것은 추상적이며 독립적인 것은 구체적인 것이다. [LU II/I, S. 248].

40) Vgl. *Krisis*, S. 49.

41) *Krisis*, S. 50.

42) Vgl. *Krisis*, S. 50.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될 점은 과학이나 기술이 아무리 발달하고 이들이 이 세계에서 무엇을 하든 간에, 우리의 쏨생활이 그 속에서 일어나며 모든 가능한 경험의 지평으로서 선소여된 생활세계의 본질적 구조와 의미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이다. 과학의 수행이 이 생활세계를 변형시키는 것이 아니다. 과학이 이 생활세계에 대해서 하는 일이란 다만 “예견을 무한히 확장시키는 것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니다.”<sup>43)</sup> “법칙에 대한 모든 지식은 오직 현실적 혹은 가능한 경험적 현상의 발생의 예견에 대한 지식”<sup>44)</sup> 으로서, 과학적 방법의 예측적 수행은 우리가 이 세계에서 생활해 나가는 실천에 이바지 한다. 사실 우리의 삶은 예측에 의존하고 있는데, 모든 과학적 성과가 이 예측을 포함한 생활세계적 삶의 목적에 봉사하고 있다.

객관적 학문의 분위기에 익숙해 온 우리는 ‘객관적’인 것에 더 높은 지적 권위를 부여하고, 객관적인 것을 모든 지식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물리학에서의 자연이란 본질적으로 이론적 논리적인 상부 구조이며, 생활세계는 그의 하부 구조이다. 이 하부 구조가 이를 기초로 하고 있는 상부 구조보다 덜 실재적이라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존재론적 관점에서는 생활세계가 과학적 세계보다 더욱 실재적이다.<sup>45)</sup> 술어적 판단의 총체로서의 학은 생활세계적인 선술어적 경험이 지니고 있는 원본적인 명증에 근거하고 있다고 후설은 주장한다. 직관적인 생활세계적 명증이 객관적 학문에 의해서 제거될 수는 없다. 객관적 학과 생활세계 간의 지속적인 의미 관계는 생활세계가 지니는 이러한 근거에 기인한다. 따라서 만일 우리가 객관적 지식의 객관적 타당성을 분명히 설명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생활세계에로 되돌아가서 생활세계가 학의 구성과 구성물에서 수행하고 있는 역할을 분명히 밝히는 철저한 학적 태도를 지녀야만 한다.

그러나 현대에 사는 우리는 학의 참된 의미지반이 생활세계임을 망각하고, 이 생활세계의 위에 ‘이념의 옷’이 입혀진 객관적 세계가 참 원천인양 받아들이고 있다. 이러한 학에 있어서의 의미의 변천은 곧 의미의 왜곡 내지는 의미의 망각으로 되고 말았다. 방법으로서의 기술은 전수되어 왔으나, 이 방법을 산출하게 했던 근원적인 의미는 전수되어 오지 못했기 때문에 학은 ‘의미가 비워져 버린’ 일종의 기술적인 사유가 되어 버렸으며, 보편적 이성(技術)적 이성으로 변해 버렸다. 바로 이 때문에 자연과학 뿐만 아니라 학일반이 참된 의미를 지닌 학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학문하는 자들이 그의 모든 의미 구성물과 방법의 원천적인 의미를 되물어 보는 능력을 소유하여야만 한다.

학에 있어서 의미를 바로 잡고 의미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학의 세계 이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활세계 자체에로 관심을 돌릴 필요가 있다. 그러나 생활세계에로의 귀환이 생활세계

43) *Krisis*, S. 51.

44) *Krisis*, S. 50.

45) McCarthy, T.A., “Logic, mathematics and ontology in Husserl”, *Journal of British Society for Phenomenology*, 3, 1972, p. 158 참조.

만이 참된 학의 대상이라고 주장하거나 객관적인 학이 잘못되어 있다고 학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후설은 갈릴레이의 발견과 자연과학적 학문의 눈부신 현실적인 성공에 찬사를 보내고 있으며, “그 고유의 진리에 있어서 자연과학을 개조할 어떠한 동기도 내포하고 있지 않다”<sup>46)</sup>고 말하고 있다. 후설이 말하고자 원했던 것은 생활세계와 객관적인 세계가 그 근원성에 있어서 대치되었다는 것과, 이 대치된 상황을 우리가 의식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참된 의미반을 망각하고 있을 때 객관적인 학은 우리에게 참된 의미에서의 지식을 줄 수 없다는 점이다. 참된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의식에 구신(具身)적으로 자신이 소여된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론적 논리적 구성물은 이러한 경험의 자명성과 되돌아 관계해 있음으로서만이 참 진리가 될 수 있다. 즉 생활세계는 객관적인 학 뿐만 아니라 논리적이고 수학적이고 과학적인 모든 이론적인 진리의 궁극적인 타당성과 정당성을 줄 수 있는 자명성의 영역이며, 따라서 모든 학적 이론의 타당성은 이 자명성으로 되물어야 한다는 것이 후설의 주장이다.

생활세계와 학문의 세계는 원리적으로는 구별되지만 서로 대립되는 세계가 아니다. 학문이 아무리 무한성을 지닌 이념을 추구한다 하여도 학문은 언제나 생활세계에로 되돌아 온다. 모든 학의 출발점으로서 전제되고 있는 이 세계는 학문의 자명성의 원천으로서 또한 지속적인 타당성의 기반(Gel-tungsboden)으로서, 그리고 학문이 설명하고자 하는 주제로서 기능한다.<sup>47)</sup> 실제로 우리에게 최초의 것은 선학문적인 생활세계에 대한 단순히 주관적이며 상대적인 선술어적인 직관이다. 후설이 행했던 객관적 학문의 성립에 대한 역사적 반성은 생활세계가 지니는 원본적인 직관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적인 시도이다.

#### IV. 결 론

우리는 과거로부터 단순히 한 시대에 속했던 학자의 이론만을 전수 받는 것이 아니라 전체로서의 세계에 대한 태도를 전수 받는다. 현재의 우리 의식을 깊이 지배하고 있는 과학적 객관주의는 자연에 대한 직접적 및 간접적인 수학을 거쳐 이루어진 갈릴레이적인 수학적 과학이 원리적으로 이미 잉태하고 있었던 하나의 철학적 태도이다. 이 객관주의는 자연의 수학적화가 철학에 끼친 다음과 같은 존재론적이며 인식론적인 주장을 펴고 있다.

자연의 수학적화에 의해서 지각적 직관에 주어진 공간이 ‘객관적’인 수학적 공간으로 대치되었으며, 이는 사물의 참된 실재는 지각에 주어진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라는 것을 시사하게 되었고, 나아가서 자연이란 우리의 주관과 관계 없이 그 자체로 존재하며 그 자신으로서 완결된 자연이며, 이 자연은 수학적으로 정확히 표현될 수 있으며, 이렇게 표현된 자연

46) *Krisis*, S. 356.

47) Vgl. *Krisis*, S. 124.



이야말로 참된 객관적인 실재라는 견해를 우리에게 심어주었다.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세계는 단지 주관적인 혼동이며, '뒤에 있는' 이 객관적인 참된 실재의 나타남에 불과하며, 경험적 세계의 존재 가치는 다만 이 배후의 실재를 지시하는 데에 있고, 이 세계는 참된 실재에 의해서 설명될 때 제대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후설이 행한 비판의 초점은 갈릴레이의 방법적인 혁신 자체나 과학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로부터 유래된 이와 같은 존재론적이며 인식론적인 철학적인 귀결들에 있다. 이러한 귀결들은 생활세계적 경험이 지니는 사물에 대한 명증성을 저하시키고, 나아가서 초월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부당한 신념을 지니게 한다.

객관주의가 품고 있는 이와 같은 철학적인 귀결들은 과학이 역사적으로 발전하여감에 따라서, 생활세계와 학적 세계사이에 존재하는 토대관계를 망각 내지는 전도시킨 데에 그 이유가 있다. 객관주의는 현대인으로 하여금 생활세계와 학적 세계 사이에 있는 분리할 수 없는 연결을 무시하고 이들을 연결될 수 없는 별개의 두 가지 세계로서 간주하게끔 하고 있으며, 나아가서 과학과 철학 사이에는 영원한 심연이 있는 것으로 믿게 하고 있다. 우리가 학적 세계의 의미지반 즉 토대가 무엇인지를 알게됨으로써, 우리는 생활세계와 학적 세계의 근본적인 관계를 인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의 이념인 보편학으로서의 철학의 위치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 벌어져가고 있는 과학과 철학의 관계를 다시 정립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모든 학문의 의미지반은 개체와의 직접경험으로 이루어지는 생활세계라는 점이 논의되어 왔다. 생활세계는 학문적 세계의 의미지반임은 틀림 없지만 생활세계 그 자체가 후설이 말하는 절대적이며 궁극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모든 학의 궁극적인 의미 원천은 아니다. 이 궁극적인 원천은 우리의 경험자체에 대한 정당한 탐구에 의해서만이 해명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소론의 주제인 과학적 객관주의에 대한 철학적 고찰이 완전한 단계에서 수행되기 위해서는 경험의 대상과 이 대상에 대한 학문을 수행하는 우리 자신의 의식에 대한 연구가 뒤따라야 한다.

## 참고 문헌

- 1) 신귀현, "과학의 객관주의와 주체성 상실의 위기에 관한 현상학적 분석", 효정 채수환 박사 화갑기념논문집, 1984, pp. 419-438.
- 2) 이진우, "후설 현상학과 탈현대", 『후설과 현대 철학』 (한국현상학회 편), 서광사, 1990, pp. 265-297.
- 3) 이길우, "구성 이론과 존재론", 『후설과 현대 철학』 (한국현상학회 편), 서광사, 1990, pp. 151-195.
- 4) Eley, L., *Die Krisis des Apriori in der transzendentalen Phänomenologie Edmund Husserls*, Hague, Martinus Nijhoff, 1962.
- 5) Husserl, E., *Formale und Transzendente Logik*, *Husserliana XVII*, Hague, Martinus Nijhoff, 1974.

- 6) Husserl, E., *Erfahrung und Urteil, Untersuchungen zur Genealogie der Logik*. Hamburg, Felix Meiner, 1972.
- 7) Husserl, E., *Die Krisis der europäischen Wissenschaften und die transzendente Phänomenologie*, Husserliana VI, Hague, Martinus Nijhoff, 1969.
- 8) Husserl, E., *Logische Untersuchungen*, II/I, Tübingen, Max Niemeyer, 1968.
- 9) Laskey, D., "Embodied consciousness and the human spirit", *Analecta Husserliana, Vol. 1* (Ed. by A-T. Tymieniecka), D. Reidel Publ., 1970, pp. 197-207.
- 10) Laskey, D., "Transcendental consciousness in Edmund Husserl's phenomenology", *Analecta Husserliana, Vol. 17* (Ed. by A-T. Tymieniecka), D. Reidel Publ., 1984, pp. 87-103.
- 11) McCarthy, T.A., "Logic, mathematics and ontology in Husserl", *Journal of the British Society for Phenomenology*, 3(2), 1972, pp. 158-164.
- 12) Mohanty, J.N., *Edmund Husserl's Theory of Meaning*, Hague, Martinus Nijhoff, 1969.
- 13) Mohanty, J.N., "Life-world and *a priori* in Husserl's later thought", *Analecta Husserliana, Vol. 3* (Ed. by A-T. Tymieniecka), D. Reidel Publ., 1974, pp. 46-65.
- 14) Rizzacasa, A., "The epistemology of the science of nature in relation to the teleology of research in the thought of the later Husserl", *Analecta Husserliana, Vol. 9* (Ed. by A-T. Tymieniecka), D. Reidel Publ., 1979, pp. 73-84.